강남구 청담동

정춘보 회장, 창립 34돌 맞아 CI·BI 리뉴얼 공개… 브랜드 포지셔닝 손질

〈신영그룹〉



정춘보
현)신영그룹 회장

1984년~ 신영기업 설립
1994년~ 신영에셋 대표이사
2005년~ 대농 대표이사
2005년~ 한국디벨로퍼협회 회장
2005년 12월~ 신영그룹 회장
2007년 2월~ 한국디벨로퍼협회 회장
2008년 3월~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
2012년 3월~ 대농 회장

디벨로퍼(Developer)란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건설사와 달리 땅 매입부터 기획, 설계, 마케팅, 사후관리까지 총괄하는 개발업체를 말한다.

대한민국 대표 디벨로퍼 중 한명으로 꼽히는 정춘보 신영그룹 회장은 2005년 한국디벨로퍼협회를 설립한 1세대 디벨로퍼로 국내에 디벨로퍼란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1984년 개척정신으로 디벨로퍼 기업 신영을 세우고 사업을 시작한 그는 이후 사업 다각화로 신영을 비롯해 신영에셋, 신영자산관리, 신영건설, 대농 등을 거느린 신영그룹을 일궈냈다.

정춘보 신영그룹 회장은 동아대 토목과를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부산시청 공무원으로 사회 생활을 시작했다. 비행기를 타고 부산 시내의 개발현황을 파악하는 항측계에서 일하면서 디벨로퍼가 되기 위해 안목을 키웠다. 또한 도시개발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일본의 도심



대우로얄카운티3차 서울 강남구 청담동 117-6

재개발 현장을 자주 접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컨설과 개발업에 눈을 뜨게 되면서 1984년 신영을 설립했다.

신영 설립 후 그는 최고의 부촌 지역으로 손꼽히던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8가구의 빌라를 지어 분양을 시작했다. 남의 아파트를 분양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땅을 매입해 건물을 올려 분양하는 방식이었다. 8가구 모두 분양에 성공하며 좋은 성과를 거두는 듯했다. 하지만 전혀 예상치 못했던 호화주택 규제라는 암초를 만났다.

정 회장은 여기에 기죽지 않고 1994년 재기할 기회를 맞았다. 1994년은 88서울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뒤 강남 테헤란로에 업무용 빌딩이 우후죽순 세워지고 있던 시기였다. 이로 인해 빈 사무실이 급증했다. 여기서 가능성을 찾은 그는 빌딩관리대행업에 뛰어들었다. 이후 직원들과 함께 일본에서 빌딩 관리기법을 배운 뒤 서울에 있는 빌딩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했다. 빌딩 소유주들은 새로운 빌딩 관리기법을 가진 신영에 관리를 맡기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마련한 목돈으로 본격적인 부동산개발사업에 뛰어들었다.

부동산개발사업의 첫 작품은 1997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분양한 오피스텔 '시그마II'다. 당시 이 오피스텔 부지 근처에 고속도로가 있어 소음이 심했으며 고압선이 지나가는 자리로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이곳에 외관을 벽돌로 꾸민 고풍스러운 유럽풍 오피스텔 '시그마II'를 분양해 성공했다. 이후에도 분당구 정자동 아파트 '로얄팰리스', 분당구 수내동 오피스텔 '로얄팰리스 하우스빌', 용인 죽전지구 아파트 '죽전 프로방스', 청주 복대동 '청주지웰시티' 등을 잇따라 선보이며 사세를 키웠다.

특히 충북 청주시 복대동 대농부지에 들어선 청주지웰시티는 일본의 '롯본기 힐스'에서 힌트를 얻었다. 총 3조원의 사업비, 면적 약 50만㎡(15만900평)에 달하는 대형 개발사업으로 주거시설, 백화점, 쇼핑센터를 비롯해 학교, 공공기관, 공원까지 들어서는 일종의 '자급형 미니도시'로 주목 받았다.

최근에도 신영은 이달 '신영지웰 운정신도시' 분양을 앞두는 등 여전히 주거 사업에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한편 신영그룹은 지난달 창립 34주년을 맞아 종합 부동산 그룹으로서 입지를 다지기 위해 CI(Corporate Ideintity)와 BI(Brand Identity) 리뉴얼을 단행했다. 인간이 생활하는 최적의 공간과 장소를 제공한다는 경영이념과 개발을 통해 도시에 생기를 더하는 부동산 디벨로퍼의 철학을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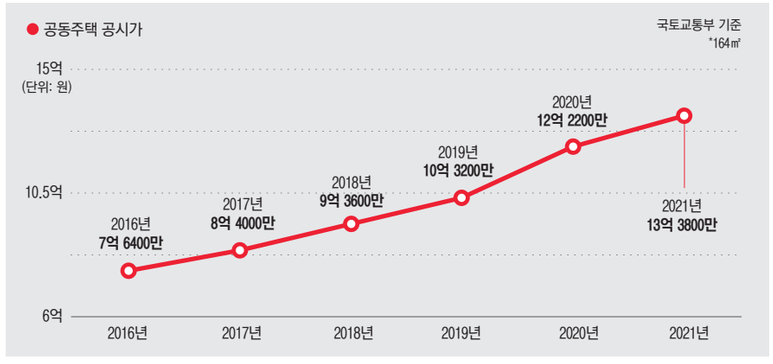
신영은 이번 리뉴얼을 계기로 기업 내 브랜드 포지셔닝 전략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하이엔드 브랜드 '브라이튼'과 주거 브랜드 '신영지웰' 간의 관리 체계를 재정립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할 전망이다.

리뉴얼 된 BI는 이달 분양하는 신영지웰 운정신도시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동원 기자 dwlee@skyedail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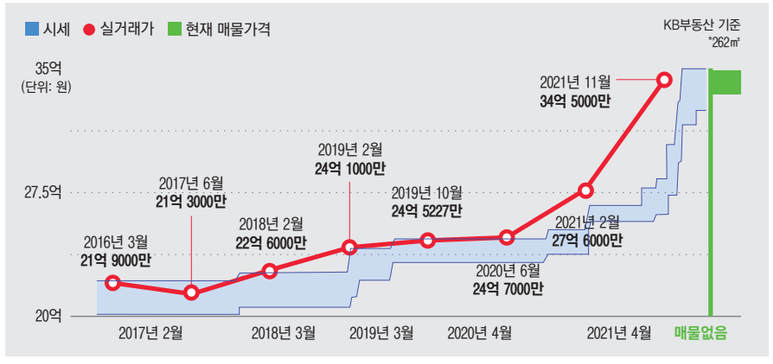
상지리츠빌5차

서울 강남구 청담동 127-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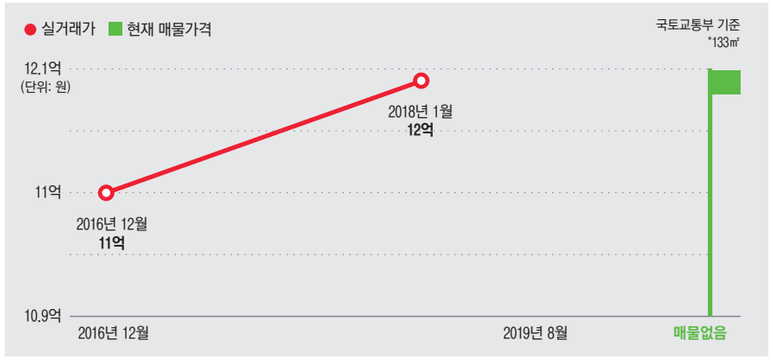
피엔폴루스

서울 강남구 청담동 4-1



네이처포엠

서울 강남구 청담동 118-17



김형석

현)아트펌팩토리 대표, 노느니특공대 엔터테인먼트 대표



김형석 아트펌팩토리 대표는 인성고등학교를 나와 한양대학교 작곡과를 졸업했다. 그는 신승훈 'I Believe', 김건모 '아름다운 이별', 김광석 '너에게' '사랑이라는 이유로', 박진영 '너의 뒤에서' 등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수많은 명곡을 작곡해 '히트곡 메이커'로 불린다. 김 대표는 광주시립합창단에서 활동하는 등 어렸을 때부터 음악에 입문해 한양대 작곡과에 입학하며 본격적으로 음악 활동을 시작했다. 원래는 클래식 공부를 하려고 했지만 같은 대학교 4년 선배인 유재하의 1집을 듣고 큰 감명을 받아 대중음악으로 전향을 결심했다. 2018년 음악과 팝아트의 결합을 다룬 '김형석 위드 프렌즈 팝 & 팝 컬래버레이션'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그해 K팝과 K아트의 협업을 다룬 'A-스테이지' 총연출을 맡는 등 미술과도 조예가 깊다. 현재 그는 아트에이전시 '아트펌팩토리'를 이끌며 작가들과 다양한 협업 공연을 선보여왔다.



문애란

현)G&M 글로벌문화재단 대표



문애란 G&M 글로벌문화재단 대표는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에서 광고 PR를 공부했다. 1975년 제일기획에 카피라이터로 입사한 그는 국내 '여성 카피라이터 1호'로 불린다. 이후 태평양화학 홍보실, 광고회사 코래드 제작팀 및 기획팀을 거쳐 웰콤을 창업했다. 웰콤을 독립광고대행사 1위까지 끌어올리며 경영인으로서도 승승장구했다. "미인은 잠꾸러기" "쉿! 레간자"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등 아직도 사람들의 뇌리 속에 남는 광고 카피를 만드는데 일조했다. 칸 광고제에서 은사자상을 받은 문 대표는 중앙광고대상 카피상, 국민훈장 동백장 등을 받으며 뛰어난 여성 광고인으로 인정받았다. 2007년 광고계를 떠나 국제어린이양육기구 '컴패션'의 풀타임 봉사자를 거쳐 G&M 글로벌문화재단 대표를 맡고 있다.



김유정

현)배우



김유정은 2003년 크라운제과의 과자 '크라운 산도' CF를 통해서 연예계에 발을 들였다. 그는 아역 연기자로 시작해 배우로 자리 잡은 얼마 안 되는 인물 중 하나다. 배우로 데뷔한 작품은 이듬해 개봉한 영화 'DMZ, 비무장지대'다. 아역 배우 당시 영화 '각설탕' 의 임수정, '황진이'의 송혜교, 드라마 '바람의 화원'의 문근영, '일지매'의 한효주 등 유명 여배우들의 어린 시절을 연기하며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일지매'를 통해 SBS 연기대상에서 아역연기상을 수상하는 기쁨을 누렸다. 이외에도 영화 '추격자' '동창생' '우아한 거짓말' '비밀' '사랑하기 때문에' 등과 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 '편의점 샛별이' '홍천기' 등에 출연했다. '편의점 샛별이'로 SBS 연기대상 미니시리즈 판타지로맨스부문 여자 우수연기상, '홍천기'로 SBS 연기대상에서 베스트 커플상과 미니시리즈 장르판타지부문 여자 최우수연기상 등을 수상했다.



맛깔나는 우리동네 부동산

송파구, 잠실진주아파트 분양일정 차질 없도록 행정지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구는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삼국시대 유물이 발굴된 가운데 "공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는 유물 발굴조사가 완료된 곳과 조사 제외(문화재 미출토)구역은 공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또 일반분양에 대해서는 문화재 발굴과 상관 없이 분양심의 등을 진행해 계획했던 일정에 맞출 수 있도록 조합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다.

잠실진주아파트는 삼성물산과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아 이주 및 철거를 마치고 지난해 12월 착공했다. 올 하반기 분양할 예정이었으나 공사현장에서 삼국시대 유물이 발굴됐다.

잠실진주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부터 전문업체를 선정해 공사 현장에서 문화재 정밀 발굴조사를 진행하던 중 삼국시대 수혈(주거 양식), 주혈(기둥 구멍) 등을 확인했다.

구는 현재까지 문화재 '보존' 이상의 가치는 없는 것으로 전했다.



잠실진주아파트 문화재 발굴조사 현장. 송파구

조합은 내달 말까지 정밀 발굴조사를 한 뒤 보고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에 대한 문화재청의 판단 결과에 따라 재건축 공사 여부가 결정된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잠실진주아파트는 작년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위한 건축심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후 사업시행변경인가와 착공을 위한 절차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2021년 해를 넘기지 않고 착공할 수 있었다"며 "공사와 분양 일정에 차질 없도록 모든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도현 기자 dhjung@skyedaily.com

해남에 4성급인 '오시아노리조트 호텔' 건립

전라남도 해남군

한국관광공사는 22일 오후 전남 해남군의 오시아노 관광단지 호텔부지에서 '오시아노리조트 호텔' 착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오시아노리조트 내 호텔 건립은 국토 서남권 지역의 관광 인프라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추진됐다. 409억원을 투입해 2023년 하반기 완공하는 오시아노리조트 호텔은 부지 면적 3만9166㎡, 연면적 9473㎡,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120개 객실 전체가 바다를 조망하는 4성급 호텔이다.

호텔은 해남의 대표적 전통 건축물인 고산 윤선도의 녹우당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오시아노 관광단지의 아름다운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인피니티 풀, 야외 테라스, 5개의 정원 등으로 공간을 배치했다. 객실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바다 조망이 가능하도록 구성을 차별화하고 △녹색건축물 △제로에너지 △에너지효율 △장애 없는 생활 인증 등을 취득해 친환경 호텔로 짓는다.



오시아노 리조트호텔 투시도. 한국관광공사

투숙객과 방문객에게 계절의 풍취를 느끼도록 로비 벽면에 대형 스크린으로 영상을 제공하고 스마트기술을 활용해 룸서비스와 안내서비스 등 비대면 총괄 안내를 담당하는 로봇도 도입한다.

이번 공사에는 시공 품질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사 대표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상호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관광공사는 착공식 행사를 간소화하고 절감된 예산을 활용해 해남군 화원면의 46개 경로당 및 2개 아동복지센터에 10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기부해 지역 상생 가치를 실현할 예정이다. 관광공사는 향후 호텔 운영 시에도 사회공헌, 지역 일자리 창출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관광공사 오시아노리조트호텔 사업단 김석 실장은 "120개 전 객실에서 해남의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품격 있는 호텔이 될 것이다"며 "호텔 건립을 계기로 민간투자를 이끌어내 전남도 및 해남군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도현 기자 dhjung@skyedaily.com